

전자파 노이즈 억제 시트 「PULSHUT」

ASAHI KASEI FIBERS사는 고기능 스펀 본드 부직포 「Precise」를 활용한 전계 노이즈 억제 시트 「PULSHUT」의 판매를 확대하고 있다. 전자파 노이즈 억제 특성을 적용시킬 수 있는 태블릿 PC 분야 이외에 「PULSHUT MU」도 새롭게 개발하여 음향기구 분야로 용도를 확장하고 있다.

「PULSHUT」는 전자기기에서 발생하는 전자파 노이즈를 억제시키는 시트로, 폴리에스터 100 % 스펀 본드·멜트 블로운 복합 부직포인 「Precise」를 기본 포로 활용하고 있다. ASAHI KASEI FIBERS사가 최종제품인 시트까지 생산하고 있으며, Hitachi High-Tech사가 판매를 담당하고 있다.

「PULSHUT」는 전자파 노이즈 중에서 전계 노이즈에 효과를 발휘한다. 두껍고 딱딱한 자성체를 사용하는 일반 노이즈 방지 시트와 달리 얇고 굽혀지기 쉽기 때문에 전자 기기의 각 부분에 적용하기 쉽고 취급이 용이하다.

또한 주파수에 따라 여러 종류를 준비해야 하는 자성체 시트와 달리 「PULSHUT」는 수백 MHz에서 약 20 GHz의 넓은 주파수대에서 효과를 발휘하며 절연성도 높다. 스마트폰, 태블릿 PC 등과 같은 전자 기기의 고성능화 및 소형화로 부품과 회로가 고밀도화됨에 따라 「PULSHUT」가 유용하게 적용되고 있다. 특히 휴대용 단말기에서는 안테나 감도 향상에 대한 수요가 높아지고 있기 때문에 시트 형태로 적용하여 노이즈를 억제시키는 「PULSHUT」가 주목받고 있다.

오디오 기기용으로 특화되어 개발된 「PULSHUT MU」는 앰프, 플레이어, 스피커의 연결 코드에 감싸면 음질이 향상되기 때문에 오디오 기기 제조업체와의 거래도 활발히 추진되고 있다.

♣ 섬유뉴스(2013년 7월 18일)